

다니엘서 13장 수산나 이야기(70인역, World English Bible) 바탕

* 수산나의 이야기는 70인역 다니엘서 13장에 나온다. 이 이야기는 전통 히브리어 다니엘 본문에는 나오지 않는다. 수산나의 이야기는 로마 가톨릭,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에서 신명경(제2경전)으로 인정된다.

1 바빌론에 요야킴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2 그는 힐기야의 딸 수산나를 아내로 맞이하였는데, 수산나는 매우 아름답고 주님을 경외하는 여인이었다. 3 그녀의 부모도 의로운 사람들이었고, 모세의 율법에 따라 딸을 가르쳤다. 4 요야킴은 부유한 사람이었고, 그의 집 곁에는 아름다운 정원이 있었다. 그가 존경받는 이였기에 유다 사람들은 자주 그를 찾아왔다. 5 그 해 백성 가운데 두 장로가 재판관으로 임명되었는데, 주님께서 이미 “바빌론에서 장로들과 재판관들에게서 악이 일어났다” 하고 말씀하신 바 있었다. 모든 송사를 그들이 맡았다. 6 그들은 요야킴의 집을 자주 찾았다.

7 백성이 정오에 흘어진 뒤, 수산나는 남편의 정원에 산책하러 들어갔다. 8 두 장로는 그녀가 날마다 들어가 걸어 다니는 것을 보고는, 그녀에게 욕정을 품게 되었다. 9 그들은 타락한 마음으로, 하늘을 바라보지도 않고 올바른 심판을 기억하지도 않았다. 10 두 사람 모두 그녀에 대한 욕망으로 불타올랐지만, 서로에게 그 마음을 털어놓지는 못했다. 11 자신들의 욕망과 그녀에게 하고자 하는 일을 드러내는 것이 부끄러웠기 때문이다. 12 그러나 날마다 그녀를 감시했다. 13 그 중 한 사람이 다른 이에게 말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세. 점심때가 되었네.” 14 그들은 나갔다가 다시 되돌아와 같은 장소에서 마주쳤다. 서로 이유를 묻고 나서야, 각자 품은 욕망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그녀를 홀로 만날 시간을 함께 정했다.

15 그들이 지켜보던 어느 날, 마침 기회가 왔다. 수산나는 전과 같이 두 시녀만 데리고 들어갔는데, 더위를 식히려 정원에서 목욕을 하려고 했다. 16 그곳에는 숨어 있던 두 장로 말고는 아무도 없었다. 17 수산나는 시녀들에게 말하였다. “나를 씻는데 쓸 올리브 기름과 향유를 가져오고, 정원 문을 닫아라.” 18 시녀들은 그녀의 말대로 정원 문을 닫고, 그녀가 부탁한 물건을 가지러 곁문으로 나갔다. 그러나 두 장로가 숨어 있는 것은 알지 못했다.

19 시녀들이 나가자 두 장로가 일어나 그녀에게 달려가며 말했다. 20 “보라, 정원 문은 닫혔으니 아무도 우리를 볼 수 없다. 우리는 네게 욕망을 품었으니 우리와 동침하라. 21 네가 거절하면, 짚은 남자가 너와 함께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다고 증언할 것이다. 네가 시녀들을 내보낸 것이라 말하겠다.”

22 이에 수산나는 깊이 탄식하며 말하였다. “나는 불잡혀버렸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면 죽음을 당하고, 행하지 않아도 당신들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없다. 23 차라리 주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고, 당신들의 손에 떨어지는 편이 낫다.” 24 그러고는 큰 소리로 울부짖었다. 두 장로도 그녀를 향해 소리를 질렀다. 25 그러자 그중 한 사람이 달려가 정원 문을 열었다.

26 집안의 종들이 정원에서 들려온 비명을 듣고 곁문으로 달려 들어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았다. 27 장로들이 이야기를 꾸며 말하자, 종들은 크게 부끄러워했다. 수산나에 대해 그런 소문은 지금껏 없었기 때문이다.

28 다음 날, 백성들이 남편 요아킴의 집에 모였고, 두 장로는 수산나를 죽이려는 악한 의도를 품고 나타났다. 29 그들은 백성 앞에서 말했다. “헬키야의 딸, 요아킴의 아내 수산나를 불러 오라.” 그래서 사람들이 그녀를 불렀다. 30 그녀는 아버지와 어머니, 자녀들과 모든 친족과 함께 왔다. 31 수산나는 매우 고운 용모를 가진 아름다운 여인이었다. 32 악한 장로들은 그녀가 베일을 쓰고 있었기에, 그 베일을 벗기라고 명령하여 그녀의 아름다움을 실컷 보려 했다. 33 그러자 그녀의 친구들과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들이 눈물을 흘렸다. 34 두 장로가 무리 가운데 일어나 그녀의 머리에 손을 얹었다. 35 수산나는 울면서 하늘을 우러러보았는데, 그녀의 마음은 주님께 의탁하고 있었다.

36 장로들이 말했다. “우리가 정원에서 걷고 있을 때, 이 여인이 두 시녀와 함께 들어와 정원문을 닫고 시녀들을 내보냈다. 37 그때 한 젊은이가 숨어 있다가 나와, 그녀와 동침하였다. 38 우리가 정원의 구석에서 이 악행을 보고 달려갔다. 39 그러나 그들과 함께 있던 젊은이는 힘이 우리보다 세어, 문을 열고 도망쳤다. 40 우리는 이 여인을 불잡고, 그 젊은이가 누구인지 물었으나 그녀는 말하지 않았다. 우리는 이 일에 대해 증언한다.”

41 그러자 회중은 그들이 백성의 장로이자 재판관이라는 이유로 그들의 말을 믿고, 수산나를 죽이라고 선고하였다.

42 그때 수산나는 큰 소리로 외쳤다. “영원하신 하느님이여, 주님은 숨겨진 것을 아시고, 일어나기 전에 모든 일을 아시는 분이시니이다. 43 보소서, 저들이 나에 대하여 거짓 증언을 하였으니, 나는 저들이 악의로 꾸며낸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죽어야 하겠나이다.”

44 주님께서 그녀의 목소리를 들으셨다. 45 그래서 그녀가 사형장으로 끌려갈 때, 하느님께서 한 젊은 청년 다니엘에게 거룩한 영을 불어넣으셨다. 46 그가 큰 소리로 외쳤다. “나는 이 여인의 피에 대하여 무죄하노라!”

47 그러자 온 백성이 그에게로 몰려와서 말했다. “네가 방금 말한 그 말이 무슨 뜻이냐?”

48 다니엘은 그들 가운데 서서 말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어찌 이처럼 어리석으냐?

진실을 밝히지도 않고, 조사하지도 않은 채 이스라엘의 딸을 정죄하다니! 49 다시 재판 정에 모여라. 저들이 그녀에 대하여 거짓 증언을 하였느니라.”

50 이에 온 백성이 서둘러 돌아왔고, 장로들이 다니엘에게 말하였다. “하느님께서 너를 장로의 영광으로 세우셨으니, 우리 가운데 앉아 우리에게 보여 다오.”

51 다니엘이 그들에게 말했다. “저 두 사람을 서로 멀리 떼어놓으시오. 내가 그들을 심문하겠소.” 52 그래서 두 사람을 따로 세우자, 다니엘은 먼저 한 사람을 불러 말하였다. “오, 악 속에서 늙어버린 자여, 네가 전에 지은 죄들이 이제 드러났다! 53 너는 불의한 판결을 내리고, 무죄한 자를 정죄하며, 죄 있는 자를 놓아주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희는 무죄한 자와 의인을 죽이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니라. 54 그러니 네가 그녀를 보았다면 말해보라. 그들이 함께 있었다는 그 나무가 무엇이냐?” 그가 대답했다. “이스람나무(마스틱 나무) 아래에서 였습니다.”

55 다니엘이 말했다. “참으로 네 머리 위에 거짓을 쏟아냈구나! 이제 하느님의 천사가 하느님의 심판을 받아 너를 들로 가를 것이다.” 56 그리고 그를 옆으로 치워놓고, 다른 장로를 불러 말했다. “오, 가나안의 씨여, 유다의 후손이 아니로구나! 네가 아름다움에 속았고, 욕정이 네 마음을 타락시켰다. 57 네가 이스라엘의 딸들에게는 이렇게 행하였고, 그들은 두려움 때문에 너와 동침하였다. 그러나 유다의 딸은 네 불의를 용납하지 않았다.

58 그러니 이제 말해보라. 그들이 함께 있었다는 나무가 무엇이냐?” 그가 대답했다.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였습니다.”

59 다니엘이 말했다. “너 또한 네 머리 위에 거짓을 쏟아냈구나! 하느님의 천사가 이미 칼을 들고 서서 너를 들로 베어 멸망시키려 기다리고 있다.”

60 그러자 온 회중이 큰 소리로 외치며, 주님을 찬양하였다. 주님은 주님을 의지하는 이들을 구원하신다. 61 그리하여 백성은 두 장로를 거슬러 일어났고, 다니엘이 그들의 입에서 거짓 증언을 드러냈기 때문에 62 모세의 율법에 따라 그들이 이웃에게 하려던 일을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였다. 두 장로는 죽임을 당했고, 그날 무죄한 피가 구원받았다. 63 이에 헬기야와 그의 아내는 그들의 딸 수산나 때문에 하느님을 찬양하였고, 남편 요아킴과 모든 친족도 그녀 안에서 아무 부끄러움이 발견되지 않았음을 기뻐하였다. 64 그날 이후 다니엘은 백성 앞에서 큰 명성을 얻게 되었다.

밧세바 이야기 (한국 가톨릭 성경)

사무엘기 하권 11장

다윗이 우리야를 죽이고 밧세바를 차지하다

1 해가 바뀌어 임금들이 출전하는 때가 되자, 다윗은 요압과 자기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을 내보냈다. 그들은 암몬 자손들을 무찌르고 라빠를 포위하였다. 그때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

2 저녁때에 다윗은 잠자리에서 일어나 왕궁의 옥상을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옥상에서 내려다보게 되었다. 그 여인은 매우 아름다웠다. 3 다윗은 사람을 보내어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았는데, 어떤 이가 “그 여자는 엘리암의 딸 밧세바로 히타이트 사람 우리야의 아내가 아닙니까?” 하였다. 4 다윗은 사람을 보내어 그 여인을 데려왔다. 여인이 다윗에게 오자 다윗은 그 여인과 함께 잤는데, 여인은 부정한 기간이 끝나 자신을 정화한 다음이었다. 그 뒤 여인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5 그런데 그 여인이 임신하게 되었다. 그래서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어, “제가 임신하였습니다.” 하고 알렸다.

6 다윗은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어 “히타이트 사람 우리야를 나에게 보내시오.” 하였다. 그래서 요압은 우리야를 다윗에게 보냈다. 7 우리야가 다윗에게 오자, 그는 요압의 안부를 묻고 이어 군사들의 안부와 전선의 상황도 물었다. 8 그리고 나서 다윗은 우리야에게, “집으로 내려가 그대의 발을 씻어라.” 하고 분부하였다. 우리야가 왕궁에서 나오는데 임금의 선물이 그를 뒤따랐다. 9 그러나 우리야는 제 주군의 모든 부하들과 어울려 왕궁 문간에서 자고, 집으로 내려가지 않았다.

10 사람들이 다윗에게 “우리야가 자기 집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하고 보고하자, 다윗은 우리야에게 “그대는 면 길에서 돌아오지 않았나? 그런데 어찌하여 그대의 집으로 내려가지 않았는가?” 하고 물었다. 11 우리야가 다윗에게 대답하였다. “계약 케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초막에 머무르고, 제 상관 요압 장군님과 저의 주군이신 임금님의 신하들이 땅바닥에서 야영하고 있는데, 제가 어찌 제 집에 내려가 먹고 마시며 제 아내와 함께 잘 수 있겠습니까? 살아 계신 임금님을 두고, 임금님의 목숨을 두고 맹세합니다. 저는 결코 그런 짓을 하지 않겠습니다.” 12 그러자 다윗은 우리야에게 말하였다. “그러면 오늘도 여기 머물러라. 내일은 내가 그대를 돌려보내겠다.” 그래서 우리야는 그날도 예루살렘에 머물렀다. 13 그다음 날 다윗이 그를 다시 불렀다. 우리야는 다윗 앞에서 먹고 마셨는데, 다윗이 그를 취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저녁이 되자 우리야는 밖으로 나가 제 주군의 부하들과 함께 잠자리에 들고, 자기 집으로는 내려가지 않았다.

14 다음 날 아침, 다윗은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야의 손에 들려 보냈다. 15 다윗은 편지에 이렇게 썼다. “우리야를 전투가 가장 심한 곳 정면에 배치했다가, 그만 남겨 두고 후퇴하여 그가 칼에 맞아 죽게 하여라.” 16 그리하여 요압은 성읍을 포위하고 있다가, 자기가 보기에도 강력한 적군이 있는 곳으로 우리야를 보냈다. 17 그러자 그 성읍 사람들이 나와 요압과 싸웠다. 군사들 가운데 다윗의 부하 몇 명이 쓰러지고, 히타이트 사람 우리야도 죽었다.

18 요압은 사람을 보내어 다윗에게 전쟁 상황을 모두 보고하였다. 19 요압은 전령에게 이렇게 일렀다. “네가 임금님께 전쟁 상황을 모두 보고하면, 20 임금님의 분노가 타올라 너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다. ‘어찌자고 성읍에 바짝 다가가 싸웠느냐? 성벽에서 그들이 활을 쏘아 댈 줄 몰랐단 말이냐? 21 여루빠알의 아들 아비멜렉을 누가 죽였느냐? 한낱 여인이 성벽 위에서 그의 머리 위로 맷돌 위짝을 떨어뜨려, 그를 테베에서 죽이지 않았더냐? 어찌하여 너희들은 성벽에 바짝 다가갔느냐?’ 그러면 너는 ‘임금님의 부하 히타이트 사람 우리야도 죽었습니다.’ 하고 아뢰어라.”

22 전령이 와서 다윗에게 요압이 시킨 대로 다 보고하였다. 23 전령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그 사람들이 저희보다 우세하였습니다. 그들이 저희에게 맞서 들판으로 나오기에, 그들을 추격하여 성문 입구까지 갔습니다. 24 그러자 궁수들이 성벽 위에서 임금님의 부하들에게 활을 쏘아 대어 부하 몇 명이 쓰러졌습니다. 임금님의 부하 히타이트 사람 우리야도 죽었습니다.”

25 다윗이 전령에게 말하였다. “너는 요압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칼이란 이쪽도 저쪽도 삼켜 버릴 수 있으니, 이 일을 나쁘게 여기지 말고, 그 성읍을 맹렬히 공격하여 그곳을 무너뜨리시오.’ 이런 말로 그를 격려하여라.”

26 우리야의 아내는 자기 남편 우리야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제 주인의 죽음을 애도하였다. 27 애도 기간이 끝나자 다윗은 사람을 보내어 그 여인을 궁으로 불러들였다. 그리하여 그 여인은 다윗의 아내가 되었는데, 여인은 그에게 아들을 낳아 주었다. 그러나 다윗이 한 짓이 주님의 눈에 거슬렸다.